노래하는 정율 스님, 관객 위한 선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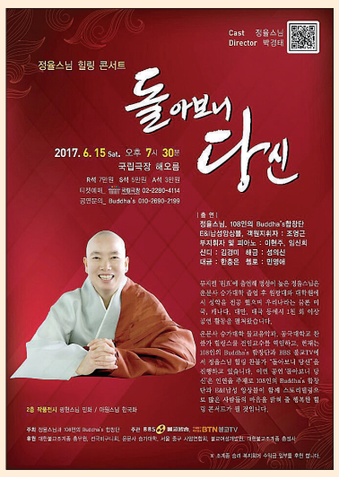
6월 15일 국립극장 해오름서 힐링 콘서트 '돌아보니 당신'

지난해 12월 광주에서 첫 개인 콘서트를 열며 광주 시민들을 감동의 도가니로 빠트렸던 정율 스님이 서울에서 두 번째 공연을 연다. 6월 15일 오후 7시 30분 국립극장 해오름에서 열리는 정율 스님의 힐링 콘서트 '돌아보니 당신'이다.

'노래하는 스님' '불교계 프리마돈나' 등으로 명성이 자자한 정율 스님은 운문사승가대학을 졸업한 후 원광대 사범대 및 동대학원에서 성악을 전공했다. 한국, 대만, 캐나다, 태국 등에서 1000여회 이상 연주활동을 이어온 불교계 대표 음성포교사로 꼽힌다. 특히 2011년 MBC 뮤지컬 '원효'에서 어머니 역을 맡아 불교계 안팎에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서울 공연은 기획, 연출, 시나리오까지 정율 스님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 정율 스님이 몇 달여 동안 직접 모든 공연을 준비했다. 종교인이 국립극장 무대에 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정율 스님은 A부터 Z까지 더욱 정성을 들였다.

무대는 '천의 손 천의 눈' '얼마나 닦아야 거울 마음 닮을까' '이루어지이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구름 걷힌 달처럼' '향심' 등 불자들의 심금을 울릴 정연 스님의 솔로 8곡 등으로 채워진다. 이 외에도 정율 스님이 이끄는 108인의 Buddha's 합창단, E&I남성앙상블, 신디 김경미, 해금 성의신, 대금 한충은, 첼로 민영애 등으로 구성된 최강의 라인업이 함께해 무대 완성도를 높였다.



'노래하는 스님'으로 명성 떨쳐
광주 첫 개인 콘서트 후 2번째
'천의 손 천의 눈' 등 솔로 8곡
해금 성의신 등 함께 무대 올라

특히 2곡이 끝날 때마다 정율 스님은 관객들에게 부처님 말씀, 인연과 관련한 이야기 등 다양한 스토리를 들려주며 소소한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1부 처음과 끝에는 잠깐의 선 명상 시간도 마련했다. 관객들이 바깥세상의 번뇌를 모두 내려놓고 공연 시간만큼은 온전히 집중해 마음의 평화를 얻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공연에 와 주시는 분들은 모두 몇 천 겁의 인연이 닿아 함께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연도, 행운도 아닌 시절인연인 셈이지요. 녹조가 생긴 물에 샘물이 흘러 물이 다시 맑아지듯, 삶에 지친 분들에게 제 노래가 샘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공연 당일엔 무비 스님이 공양한 책 〈108자재어〉를 비롯해 차, 떡 등을 관객들을 위해 나눈다.

공연은 티켓 오픈 일주일 만에 매진 세례다. 표가 없어서 초청권으로 나눴던 표까지 거둬들이고 있을 정도. 관객들의 뜨거운 성원에 정율 스님은 벌써부터 앵콜 공연에 대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종교인으로서 공연장 대관에 어려움이 있지만 더욱 많은 지역에서 관객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인천, 청주, 부산 등 전국에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연의 수익금 일부는 조계종 승려복지회 후원에 쓰인다.

정율 스님은 운문사승가대학 불교음악과 및 동국대 찬불가 힐링스쿨에서 전임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108인의 Buddha's 합창단을 이끌고, BBS불교방송에서 힐링 찬불가 '돌아보니 당신'을 진행하고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BBS불교방송 모바일앱, 1만 다운로드 돌파

통합앱 및 라디오 전용앱 출시 한 달 만



BBS모바일앱 안내서.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이 신설한 모바일앱 다운로드 수가 출시 한 달 만에 1만건을 돌파했다.

BBS불교방송는 앞서 4월 24일 통합앱 'BBS불교방송'과 라디오 전용앱 'BBS보리'를 출시, 5월 31일을 기점으로 각각 1만 · 5000건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다. 5월 31일부터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도 모바일앱 설치가 가능해져 다운로드 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통합앱 'BBS불교방송'은 라디오, TV, 뉴스, 커뮤니티 만공회 등 BBS가 제공하는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라디오 전용앱 'BBS보리'는 BBS불교방송의 라디오 청취 뿐 아니라 24시간 청취 가능한 '공감' 채널을 통해 찬불가와 독경, 세계 명상음악, 올드 팝송 등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BBS불교방송 모바일앱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와 앱스토어(아이폰)에서 'BBS불교방송' 또는 '보리'를 검색한 후 다운로드 하면 된다. (02)705-5518 박아름 기자

로터스갤러리, 박기태 외 4인 신진작가 기획전

개인전 공간 · 전시 비용 · 격려금 200만원 지원

무각사 로터스갤러리의 2017 신진작가 기획전이 열린다. 올해 선정된 전시 작가는 박기태(시각예술) · 양세미(한국화) · 이재운(미디어-설치) · 김단비(회화) 총 4명이다. 무각사는 4명의 작가들에게 개인전을 열 공간과 전시 비용, 격려금 20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첫 전시는 박기태 작가의 'under-stand 아래에 서다'로 시작된다. 박기태 작가는 전남대 미술학과에서 조소전공을 한 후 동대학원에 재학중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해하다'란 뜻의 영단어 'understand'에서 영감을 얻어,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우리 생활 속 자연스러운 '차이'와 '시각'을 표현한다.

특히 박쥐 이미지를 '경계자(중간자) 적' '규정하기 힘든 것' 들을 상징하는 의미로 차용해 독창적인 작품관을 선보일 예정이다. 6월 28일까지.

이밖에 전시 작가 일정은 △양세미 7월 1~29일 △이재원 8월 1~29일 △김단비 9월 1~29일이다.


인물박쥐, 박기태 作

무각사 주지 청학 스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가의 길에 들어선 신인작가들에게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주고 싶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작가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겠다. 이들의 의욕적인 작품 활동을 통해 광주 지역 미술계의 큰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동국대 개교 111주년 '외길 김경호 사경 초대전'

6월 23일까지 동국대박물관 초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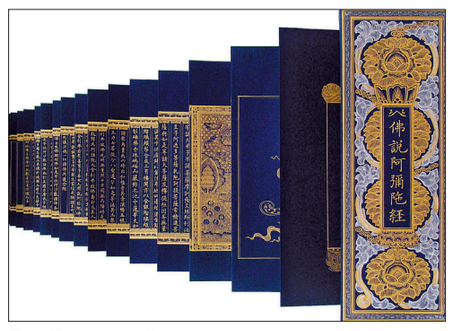
동국대학교 박물관은 개교 111주년을 맞아 '외길 김경호 사경 초대전'을 6월 23일까지 마련했다.

사경은 부처님 말씀을 문자로 기록한 경전을 한 자 한 자 손으로 베껴 쓰는 수행법이다. 집념과 인내의 마음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완성하기 어려워 수행법 중에서도 힘든 편에 속한다.

외길 김경호는 전통 사경의 맥을 잇겠다는 신념으로 끊임없이 정진해 왔다. 불경 뿐 아니라 성경, 유교경전 등도 제작하고 있어 사경 영역의 무한함과 가능성을 창출하고 있는 작가로 평가받는다.

국내 유일의 전통사경 기능전승자(고용노동부장관 2010-5호)로 1997년 조계종 총무원과 동방연서회가 공동 주최한 제1회 불교사경대회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외길 김경호의 대표작 감지금니일불일자 〈화엄경 약찬게〉와 감지금니7층보탑 〈법화경 견보탑품〉, 고려 사경을 재해석한 작품 및 창작사경을 포함해 약 20여점의 작품들이 소개된다.


감지금니 아미타경.

동국대 박물관은 "이번 전시는 문화재를 전시 · 조사하는 박물관을 넘어 과거와 현재를 잇는 매개체로서 박물관의 역할을 드러낼 것"이라며 "불교종립대학박물관으로서 역할을 보여주는 전시란 점에서 매우 의미있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월정사 · 춘천박물관, 2018 평창올림픽 기념 특별전

'강원의 성자(聖者)와 미소'
2018년 1월 29일~3월 25일

국립춘천박물관(관장 김상태)과 월정사성보박물관(관장 정념)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념 특별전 '강원의 성자(聖者)와 미소'를 2018년 1월 29일~3월 25일 월정사성보박물관 신관에서 공동개최한다. 국립춘천박물관과 월정사성보박물관은 앞서 6월 2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별전 공동개최와 성보문화재 보존 및 연구 · 조사 등 협력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송사지석조보살좌상(국보 127호), 상원사 문수보살(보물 1811호), 영월 창령사지 출토 오백나한 등 성보분화재들이 전시돼 올림픽 정신을 구현하고 우리나라 및 강원의 문화 역량을 뽐낼 예정이다.

월정사성보박물관은 "이번 전시로 평창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성공시키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양 기관이 추진할 각종 공동사업은 지역민들에게는 강원문화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강원 문화를 널리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